

나봄리조트, 구천동 흙탕물 오염 가중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탁류 옥탑방지 시설 미설치해 폭우로... 지역주민들 “성수기 관광객 급감... 공사 중단하라” 농성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나봄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환경 오염물질인 건축 폐기물 방치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24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주구천동 나봄 리조트 공사는 관광숙박시설 신축면적 3027㎡(약916평)를 2016년 3월 착공에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H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다.

H건설은 공사장에 탁류 옥탑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로 탁류 발생에 의해 구천동 수질이 크게 오염돼 관광객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구천동 청정계곡에 흙탕물이 웬 말이나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을 임시보관소에 분리 보관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소각하는 불법을 강행, 법적인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법을 무시한 채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소각하는 불법을 되풀이 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과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물론 세련 시설이 건축법에 없으나 관광지를 감한해 설치할 했어야 했다. 이를 무시해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주민들 생활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방치돼 있고, 공사장 근무자들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H건설은 무주군 나봄 리조트 공사 현장에 탁류 옥탑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H건설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인 내 삼공리에 공작물(수중보)을 불법으로 설치해 고발과 함께 철거 권유를 받고도 방치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2016년 8월경 설천면 삼공리 공인사무소 부지를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한 것이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으나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동 위치상 진입로 폭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공인사무소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청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구천동의 수질이 오염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어 주변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청정계곡 흙탕물 오염원인 나봄리조트는 떠나가라, 구천동 청정계곡 흙탕물이 웬 말이나, 당장 공사 중단하라, 주민을 무시하는 나봄 리조트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나봄리조트 입구에 걸고 농성을 벌였다.

이장 이점수씨와 송봉화 구천동 지역개발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시행사를 감독하고 있는 감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불법 수

중보와 토지형질변경은 공원의 관리 소홀로 현재 사법기관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공인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모(55세)씨는 “신축공사 시작하기 전에 토지조성을 먼저 해놓고 건축에 들어갈 경우 집중호우에도 흙탕물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봄리조트 관계자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법을 준수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생후 6~12개월→59개월로

전주시 보건소는 생후 6~1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올해에는 6~59개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영유아다.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 대상 영유아의 경우, 9월 4일부터 무료접종

을 실시할 예정이며, 1회 접종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9월 2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전국 영·유아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전주시역 75개소)에서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예방접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전주시설공단은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상가할인권을 제작·판매하고 주차장 안내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1시간 무료주차 할인권을 상가연합회에 50% 할인된 요금으로 판매했으며, 이를 구매한 상가의 이용객들은 인근 공영주차장

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의 무인요금정산기의 상가할인권 감면처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통합 관제센터 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요금, 운영시간, 주차장 위치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차장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서부신시가지 찾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 동부대로 주변 미급수 지역 상수도 설치

전주시는 송천동 동부대로(구)기린유교~발달리네거리 주변의 미급수 지역에 수도를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현재 인근에 상수관이 매설돼 있으나, 이는 수량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배수관으로 급수가 불가능해 15세대 가량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급수가 가능토록 유량계 설치로 배수관을 변경해 수도를 공급으로 불린 해소와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0월말까지 발달리네거리 부근에 유량계를(구)기린유교 부근으로 이설해 배수관으로 활용토록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저금리 대출’ 보이스 피싱 일당 11명 검거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사기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해 40여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해 불특정다수에게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와 문자를 보내 저금리 대출로 바꿨다고 속여 자신들이 연결해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출상환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꼬드쳐 대출받은 돈을 자신들에게 입금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시중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을 붙잡기 위해 인터넷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서 4중 총동... 부상 2명

24일 오전 8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삼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두 승용차끼리 충돌사고가 일어나 이 총격으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각 승용차 차주 2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명품해설 장착한 ‘전주 관광택시’ 인기

시범투어 결과 이용자 83% ‘다시 이용’... 내실 있는 관광코스·해박한 지식 호평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주시가 명품해설을 장착한 관광택시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가운데, 시범투어 체험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관광택시 운행자와 관광전문가, 공무원, 일반인 등 37명이 참여한 ‘전주 관광택시’ 사전답사 및 시범투어 추진 결과, 이용자의 83%가 관광택시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체험자들은 관광택시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내실 있게 꾸며진 관광코스, 친절도, 현지인 택시 운행자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 호평했다.

특히, 전주에 대해 잘 아는 택시 운전자들이 전주한옥마을 외에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등 유익한 여행정보를 제공하면서 관광욕구를 충분히 채워줬다는 평가다.

시는 시범투어를 통해 세 가지 특색 있는 관광코스를 선보였다.

A코스는 월드컵경기장과 한지박물관 등을, B코스는 영화종합촬영소와 국립박물관 등을 경유지로 하고, C코스는 전통문화의전당과 남부시장 등을 경유지로 삼아 차별을 뒀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운행되는 전주 관광택시는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도 관광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고, 운행 중 전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모범

운전자 표창을 받은 경력과 무사고 운전기간, 기본마인드 검증 등을 종합 평가해 20명의 운전자를 선발하고, 총 30시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시장은 24일 전주관광택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나아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한옥마을에 편중된 관광을 전주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코스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관광택시가 운행되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아시아 3대 관광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효과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